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치화와 2008년 촛불시위*

서이종** · 박아름***

본 논문은 정보사회에서 시민의 정치적 참여는 인터넷 환경에서, 특히 다종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들과의 관계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2008년 촛불시위 때 최대 커뮤니티 사업자인 다음사의 여성 패션 카페를 사례로 밝힌 글이다. 2장은 인터넷 환경에서 시민의 정치참여의 특징을 밝히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례로서 A카페와 A카페에서 상업화 문제로 분화된 B카페의 특징을 밝혔다. 3장은 2008년 촛불시위 과정에서 B카페의 여성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게시판에서 사담글 금지 논란이 제기되었고, 그 반발로 A카페의 부분적 활성화를 낳는 과정을 밝혔다. 4장은 2008년 촛불시위 참여를 둘러싼 갈등의 결과 A카페와 B카페가 회원수, 열성 회원수 그리고 게시물 추이 등을 통해서 그 변화를 밝혔다.

주제어: 시민의 정치참여, 촛불시위, 인터넷 커뮤니티, 열성 회원, 사담글

1. 들어가는 말

최근 한미 FTA 반대 집회가 열기를 띠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사망으로 조용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나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정치적 활동의 열기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09년 10월 이후 급격하게 확산되어 2011년 10월 2,000만 명의 이용자를 가진 스마트폰에 기반한 트위터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기획연구과제 “한국 민주주의 평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촛불집회 국면을 중심으로”(2008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프린스턴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정치적 영향은 2011년 서울시장선거에 까지 이른 연이은 보궐선거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영향력이 과대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끼리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면서 정치사회적 의견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대량의 정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교환되고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의 다종다양한 게시판과 블로그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결집하고, 심지어 동원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정치적 사건은 정치단체 및 시민단체의 조직적 활동뿐만 아니라 관련 정치 및 시민단체의 자유게시판, 아고라 등 공개게시판, 개인 블로그 등 다양한 소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통되고 동원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현금의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성격과 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 못지않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인터넷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여기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해 주목한다. 2008년 다음사의 카페만 하더라도 이미 730만 개에 이를 정도로 다종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터넷 커뮤니티 중 가장 많은 것이 친목도모 카페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정치적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미 FTA와 관련한 미국산 쇠고기협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2008년 촛불시위 과정에서, 패션 정보 교환 및 친목도모 카페인 A카페와 B카페를 사례로 시민의 정치적 활동의 사회적·기술적 환경과 그 성격을 살펴본다. A카페는 20~30대 여성의 패션 인터넷 커뮤니티로서 가입회원 수 75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였지만 상업화 문제로 회원들이 대거 이탈하여 B카페를 만들어 대립하였다. 이러한 대립과정에 촛불집회 참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2. 비정치적 인터넷 커뮤니티와 2008년 촛불시위

1) 비정치적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치화

인터넷 커뮤니티는 초·중·고등학교 친구 커뮤니티와 친목도모 및 취미 커뮤니티가 압도적으로 많다(서이중, 2002; 박아름, 2009).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는 정치단체나 시민단체의 커뮤니티도 있고 정치 관련 사안을 논하는 토론 커뮤니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통상적으로 대단히 비정치적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비정치적 커뮤니티에서도 회원들 간에 정치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정치화되는 과정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한 정치화 과정에서 회원들 간에 내부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 이렇듯 비정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치화(politics of internet communities)’는 비정치적 인터넷 커뮤니티가 어떤 시점을 계기로 정치화된다는 의미에서 전면적이라기보다는, 비정치적 커뮤니티 내부에서 회원들 간에 소규모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일부 회원들이 참여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치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치화는 뒤집어 보면, 고도정보사회에서 시민의 정치적 참여는 다종다양한 수많은 소통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들의 네트워크 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비록 비정치적이라 할지라도 회원들 간의 소통과정에서 정치적 발언과 소통의 확산에 기여하며 또 회원들의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실제 촛불시위가 발생하던 2008년 당시 다음의 카페가 730만여 개에 이를 정도로 인터넷은 수많은 게시판들과 함께 거대한 소통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게시판-커뮤니티-블로그 등의 소통의 연쇄고리와 그 네트워크는 시민의 정치적 참여에 중요 인프라라 할 수 있다. 선도적인 정치단체나 시민단체들, 혹은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정치적 이슈가 게시판,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어 시민의 활발한 정치적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살펴보는 A카페와 B카페는 2008년 촛불시위에 생활정치적 이슈인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적극 공감한 20~30대 여성들이 가장 많

이 회원으로 가입된 초대형 패션 카페로서, B카페는 A카페에서 분리되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즉, 쏫불시위 발생 직전에 카페 운영자가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수령한 돈이 총 1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열성적인 회원들이 B카페로 분리되어 서로 대립하였다. 그러한 대립 과정에서 쏫불시위의 참여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비정치적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례

A카페는 2001년 9월 15일 개설된 패션 관련 카페로 2008년 초 회원 수가 7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다음 카페 중 수년간 항상 5위권 이내에 드는 초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이다. 일일 평균 4,500여 개의 게시물 수를 지니며 2주간 페이지 뷰가 706만여 건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업화 논란으로 적극적인 활동 회원들이 빠져나와 2008년 2월 11일 B카페로 분가하면서 많이 위축되기는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2008

〈표 1〉 A카페 카페와 B카페 카페의 총회원수 추이

날짜	총회원수(명)		활동 회원수(명)		게시물 수 증감		페이지뷰	
	A카페	B카페	A카페	B카페	A카페	B카페	A카페	B카페
01/31~02/13	758,142	4,972	130,253	4,924	90,383	2,757	7,065,133	35,898
02/14~02/27	755,470	38,144	132,205	37,523	47,002	46,925	5,521,421	1,284,835
02/28~03/12	750,910	67,128	126,603	63,728	-49,072	115,831	1657,195	3,994,835
03/13~03/26	749,255	74,524	110,396	64,093	-6,282	67,249	495,024	4,729,187
03/27~04/09	748,829	. ¹⁾	103,177	.	4,250	.	407,553	.
04/10~04/23	748,079	.	93,898	.	2,432	.	379,032	.
04/24~05/07	748,176	.	96,546	.	4,893	.	396,264	.
05/08~05/21	748,457	.	100,776	.	11,720	.	402,808	.
05/22~06/04	749,110	.	94,016	.	8,235	.	438,060	.
06/05~06/18	750,895	.	92,039	.	7,764	.	480,302	.
06/19~07/02	750,979	83,974	85,989	58,289	8,198	.	459,114	2,773,697
07/03~07/16	751,066	83,768	85,455	57,179	14,696	30,208	456,203	2,672,622
07/17~07/31	751,992	83,405	88,752	56,649	5,907	21,305	523,270	2,506,927

주: 1) 데이터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측에 문의한 결과 4~5월에 걸쳐 일부 카페의 랭킹 정보에서 데이터 누락이 있었으며, 누락된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받았다.

년 10월 다음 카페 랭킹에서 13위를 차지하였고, 다음 카페의 ‘여성/패션/미용’ 분야에서 B카페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된 카페이다.

B카페는 A카페의 활동 회원 상당수를 흡수하여 독립 이후에도 승승장구하였다. A카페에서 분리되면서 일약 관련 분위 1위에 올라서고 비공개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카페 전체에서 랭킹 4위를 차지하였다. A카페의 활동 회원 상당수를 흡수한 B카페는 A카페로부터 독립 이후 승승장구하였다. 자유게시판의 일일 게시물 수가 4,000~5,000건으로 A카페 사태 이전의 A카페와 거의 대등한 활성화 정도를 보였으며, 그동안 A카페의 자료를 B카페의 게시판으로 꾸준히 스크랩해왔고 A카페에서 패션자료 업로드를 도맡아 하던 회원들 역시 B카페로 옮겨왔기 때문에 패션 자료 역시 A카페 시절 못지않게 풍부하다는 평을 받았다. 양적 성장을 계속하던 B카페는 4월 11일부터는 비공개 카페로 전환하였다. 이미 회원수에서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 회원을 받아들여 양적 성장을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신규 회원들로 인하여 A카페로부터 이어오는 B카페 특유의 분위기나 정신이 손상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B카페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한 것은 카페 랭킹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5월 14일경 일시적으로 카페를 공개했을 당시 B카페의 카페 랭킹은 전체 4위였다. 개설 3개월의 신생 카페가 다음에 등록된 모든 카페를 대상으로 하는 카페 랭킹에서 4위라는 순위를 기록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A카페는 B카페에 비해 회원수에서 월등히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카페 랭킹에서 11위에 머물렀다(박아름, 2009).

3.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치화와 ‘사담글’ 논란

B카페는 패션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측면에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에서 비롯된 촛불집회 참여로 나타났다. A카페 시절부터 대선과 총선거 등의 정치적 사안에 뚜렷한 찬반을 보여주던 활동 회원들은 촛불집회, 광우병 소고기 반대 신문광고, 교육감선거 후보 지지, 광복절 플래시몹, 특정 신문사 광고 반대 운동 등으로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였다. 특히 B카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집단 중의 하나로, 이를 통해 ‘정치에 관

심이 많은 젊은 20대 여성들'로 여러 차례 방송·라디오·신문 등의 언론매체에 소개되었다.¹⁾ 촛불집회 참가로 인하여 B카페는 자칭·타칭 '배운 여자'라는 애칭으로 소개되었고, 이는 B카페 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연대감을 높이고 정치적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²⁾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오히려 B카페의 분열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B카페는 6월 중순 이후 가시적인 내부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분열의 원인은 친목도모 카페에서 가장 주된 회원들의 신변잡기의 글, 소위 '사담글'이라 불리는 게시물이다. 원래 사담글이란 자유게시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적인 잡담, 연예인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관련 잡담, 유머 등의 게시물을 의미하는데, B카페에서 의미하는 사담글은 한국의 현재 정치·경제적 상황이나 촛불집회 관련 글을 의미하는 '시국 관련 글'과 상반되는 의미로 통용된다.

'사담글 논쟁'은 5월 말부터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5월 말에서 6월 초부터 B카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와 전경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게 되자, 같은 회원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회원들이 게시판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집회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게시판에서의 '사담'을 자제하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 집회 생중계를 시청하거나, 현장에 나가 있는 회원들에게 집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주는 식으로 촛불집회에만 집중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하지만 곧 사담글 금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측과 회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측으로 나누어져 이에 대한 끝나지 않는 논쟁이 매일 이어졌다. “전 사담글 자제 하라는 말 안 올렸는데요~ 정말 올리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무슨 봉어나규.....

1) B카페가 언급된 매체 보도로는 “광고 투쟁 물꼬 튼 멋쟁이 그녀”(시사IN 39호, 08/06/09), “여성이 밝힌 촛불...“떡거리는 삶과 직결””(한겨레, 08/06/13), “조용하지만 거대하게 흐르는 ‘변화의 물결’”(시사IN 40호, 08/06/17), “‘배운 여자’와 소통하라”(경향신문, 08/06/22), “촛불, 100일을 말하다”(한겨레, 08/08/14) 등의 신문과 잡지를 통한 보도, “여성, 시위 문화를 주도하다”(KBS 1TV <문화지대>, 08/07/04), 미디어포커스 등의 TV 보도 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08/05/26)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의 보도 등을 들 수 있다.

2) 미국에서도 사이버 공간의 정치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계층은 고학력의 젊은이들이며 이들은 자신들이 훨씬 더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표 2〉 B카페 카페의 사담 게시물 추이

(단위: 건, %)

날짜	게시물 수		총 게시물 수	게시물 비율 (금지 시간/허용 시간)
	사담 허용 시간	사담 금지 시간		
07월 08일	1,198	347	1,545	0.29
07월 09일	1,209	294	1,503	0.24
07월 10일	1,330	389	1,719	0.29
07월 11일	1,154	720	1,874	0.62
07월 12일	1,475	736	2,211	0.50
07월 13일	1,415	467	1,882	0.33
07월 14일	1,240	882	2,122	0.71
07월 15일	1,404	683	2,087	0.49
07월 16일	1,378	584	1,962	0.42
07월 17일	1,450	424	1,874	0.29
07월 18일	1,586	809	2,395	0.51
07월 19일	1,238	372	1,610	0.30
07월 20일	1,069	235	1,304	0.22
07월 21일	1,427	1,368	2,795	0.96
07월 22일	1,530	512	2,042	0.33
07월 23일	1,173	372	1,545	0.32
07월 24일	1,333	302	1,635	0.23
07월 25일	1,228	273	1,501	0.22
07월 26일	1,090	275	1,365	0.25
07월 27일	955	219	1,174	0.23
07월 28일	1,064	166	1,230	0.16
07월 29일	1,528	470	1,998	0.31
07월 30일	1,447	1,453	2,900	1.00
07월 31일	1,315	309	1,625	0.23

돌아서면 사담 사담 사담.....”, “와...진짜 사담글 너무 하네요!!!!!!”, “사담글 이제 화 나려고 하네”와 같은 사담금지론이 있는 한편, “길고 여유있게 가자고~~~ 만약 사담 나눌 공간이 아예 없어진다면 블존은 점점 더 썰렁해질거고...”, “사담은 언제까지 자제인가요??”와 같은 사담허용론 역시 존재하면서 찬반양론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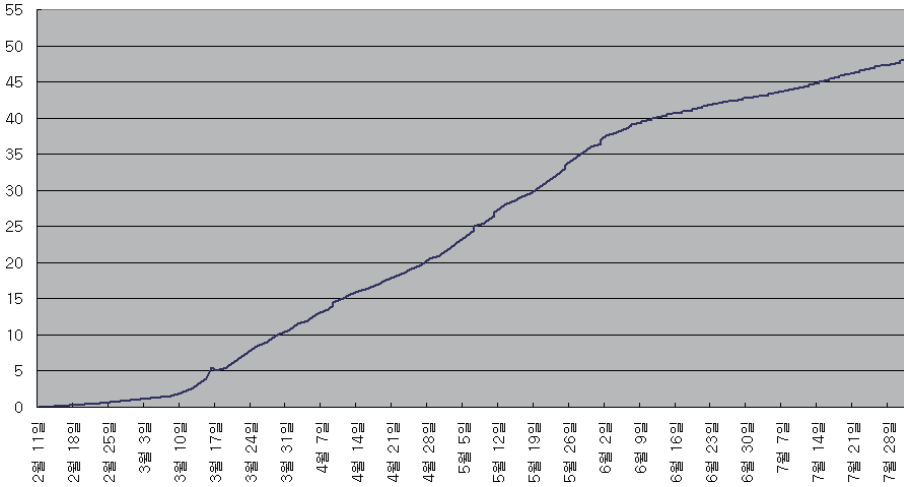
더구나 의견 수렴이나 투표와 같은 절차도 없이 어느 순간부터 사담글이 반강제적으로 금지되고, 사담의 정확한 정의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알고든 모르고든 사담글을 쓰는 회원들은 리플과 쪽지로 비난을 받게 되면서 회원 간의 감정적인 갈등 역시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시위 안 가시는 분들 비난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사담글이나 올리지 마세요”, “사담글 상관 없다가나 너무 강요하신다는 분들 시위 나가셨는지 궁금하다”라는 식으로 사담글 반대자를 현재 사회 상황에 무관심한 ‘의식 없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회원들 간의 감정적인 대립을 격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회원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자 운영진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사담과 관련한 투표를 실시했다. 2008년 7월 5일 사담글 투표 결과에 따라 7월 7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자유게시판에서의 사담이 허용되고, 그 외의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시국 관련 글 이외의 게시물은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다. 회원들의 투표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사담글 규정이 생기게 되었지만, 이 문제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사담 허용 시간과 사담 금지 시간에 등록된 게시물 수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담 허용 시간대가 10시간인데 비하여 사담 금지 시간대가 14시간으로 사담 금지 시간대가 더 길고, 이전의 A카페 시기부터 자유게시판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가 늦은 저녁에서 새벽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B카페 회원들의 관심 저하 내지는 무관심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등장했다.

또한 사담 금지 시간임에도 “사담글인 줄은 알지만 제가 급해서요”와 같이 규정을 위반하는 게시물들이 여전히 등록되었고, 자유게시판은 이름 그대로 자유로운 게시판인데 사담글을 금지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며 이와 같은 강압적인 규제는 B카페에 대한 회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현재 상황 자체에 피로를 느껴 오히려 사회적 무관심을 유발하게 된다는 주장이 되풀이되었다. 그리고 갈수록 사담 허용 시간에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는 회원들과 사담 금지 시간에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분리되어 낮 시간대에 자유게시판에서 활발히 사담을 나누던 회원들이 사담 금지 시간에는 리플에서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담글 규제를 지속하는 것은 효용성이 없음은 물론 카페 내부의 분리만을 촉진시킬 뿐이라는 의

(단위: 만)



〈그림 1〉 A카페 자유게시판 누적 게시물 수 추이

견도 등장했다.

실제로 사담글 논쟁이 본격화된 6월 중순부터는 자유게시판의 활성화가 저하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B카페 자유게시판의 누적 게시물 수 추이를 살펴보면, 6월 중순경부터는 5만 건의 게시물이 등록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현저하게 길어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6월 이전에는 5만 건의 게시물이 등록되는데 걸린 시간이 평균 13일³⁾로 큰 변화 없이 자유게시판의 활성화가 유지되어 왔으나, 400,001번 게시물이 등록된 6월 12일부터 450,000번째 게시물이 등록된 7월 14일까지는 34일이 소요되었다. 이는 이 시기부터는 자유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수가 1/3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사담글 논쟁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B카페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3) 50,001~100,000번 게시물이 등록되는데 걸린 시간이 12일, 10,001~150,000번 게시물이 13일, 150,001~200,000번이 16일, 200,001~250,000번은 11일, 250,001~300,000번은 12일, 300,001~350,000번은 10일, 350,001~400,000번이 등록되는데 걸린 시간은 16일이다. 1~50,000번까지의 게시물은 비교적 B카페 개설 직후 카페가 안정화되지 못한 시기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소울라운지⁴⁾ 게시판에서도 나타났다. 자유게시판과 함께 가장 활성화된 게시판인 소울라운지와 자유게시판 양쪽 모두에서 게시물 수의 저하는 물론 조회수 자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특히 조회수 저하는 정치·사회적인 내용의 게시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촛불집회나 정치 관련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울라운지에서 분리시킨 핫이슈 게시판은 유아무야해졌다는 자평이 나올 정도로 회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는 소울라운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유게시판에서 사담이 금지된 것과 동시에 소울라운지 역시 시국 관련 자료를 제외한 기타 자료(연예, 스포츠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실시되어 왔는데, 촛불시위가 길어지고 그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게시판의 규제 사항 역시 점차 늘어나게 되자 회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일종의 피로감을 나타내게 되었다. 8월 중의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는 이러한 현상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맞이하여 올림픽 관련 자료에 대한 규제가 일시적으로 풀리게 되자 올림픽 관련 게시물과 정치, 시국 관련 게시물의 조회수에서 현격한 격차가 나타난 것이다. 올림픽 경기 성적이나 국가대표 선수에 관한 자료는 조회수가 10,000~20,000회를 상회하지만 그 외의 게시물들은 조회수가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차이를 보였다.

사담글 논쟁으로 인한 이와 같은 B카페의 내부 분열은 오히려 그동안 침체된 A카페를 활성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A카페의 활성화는 익명게시판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핵심 활동 회원들의 이탈과 A카페의 혼란이 진정된 직후인 3월 중순경부터 A카페의 자유게시판과 레스트보드는 A카페 사건 이전에 비해 극도로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원래 자유게시판 1과 레스트보드는 A카페의 여러 게시판 중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게시판으로, 특히 자유게시판 1은 하루에 5,000~8,000개의 게시물이 올라올 정도였다. 하지만 A카페가 새 운영자에게 양도되고 B카페가 완전히 독립을 선언한 시점인 3월 6일을 전후로 일일 게시물 수가 5,000~8,000건에서 100여 건으로 급락하기 시작하여 3월 중순부터는 일일 50건 미만 수준으로 더욱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레스트보드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했는데,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레스트보드에 게시된 글들이 한 페이지(20건)에도 미

4) B카페의 소울라운지는 A카페의 레스트보드에 해당하는 게시판이다.

치지 못했다.

이렇게 자유게시판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이 지속되자, A카페의 새로운 운영진은 3월 19일 익명게시판을 개설하였다. 익명게시판은 글 작성자 자체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글을 썼는지 알아낼 수 없는 시스템이다. 게시판이 개설된 직후 2~3일간은 B카페 회원들이 행한 그간의 ‘도배 테러’에 대한 성토로 하루에 120~150건의 게시물이 작성되었으나, 곧 일일 게시물 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5월 말까지는 하루 평균 20~30건의 게시물만이 등록되는 저조한 활동량을 보였다. 이는 하루에 40~50건의 게시물이 등록되는 자유게시판의 게시물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5월 말경부터는 익명게시판의 게시물 수가 자유게시판의 게시물 수를 추월하여 꾸준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6월 말에는 150여 건에 이르게 된다. 이 수치는 7월 10일경부터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여 7월 말에는 일일 400건 이상의 게시물이 등록되었다.

이와 같은 익명게시판의 활성화 추이는 같은 시기 B카페 내부에서 벌어진 사담 글 논쟁의 영향을 받았음이 추론 가능하다. 먼저, 1차적으로 게시물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5월 말에서 6월 초의 시점은 B카페에서 사담 금지가 반강제적인 형태로 실시되면서 이와 관련된 찬반양론으로 내부적인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A카페 익명게시판 게시물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7월 10일경은 B카페에서 사담 금지 시간대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7월 7일과 거의 일치한다.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의 사담 금지 시간에는 아예 사담을 할 수 없도록 공지로 발표되었고, 때로는 사담 허용 시간 중에도 사담을 자제해달라는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종 잡담과 유머로 가득했던 ‘본래의’ B카페를 지향하거나, 늘어나는 규제에 자유를 억압받는다고 느끼는 회원들이 무슨 내용의 글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음은 물론, 원래 익숙했던 A카페로 눈을 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정보가 공개되는 자유게시판보다는 안전한 익명게시판을 선호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6월에 접어들면서 A카페의 익명게시판에 ‘B카페에서 왔다’는 회원들의 글이나 리플이 늘어나거나 B카페의 규제에 대한 험담이 증가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카페 역시 이러한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ㅂㄷ를 가끔 가는데. 08.07.02

ㅂㄷ를 가끔 왔다갔다 가끔 하거든요.ㅋㅋ. 분위기가 궁금해서. 거의 익게만 가는데..

익게에 보면 B카페에서 오셨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새 B카페가 정치이야기가 좀 너무 많아졌다면서 사담글을 너무 금지시켜서 좀 답답하다..ㅠㅜㅠ;;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덕에 ㅂㄷ는 회원수나 방문자수가 더 늘어나고, 익게도 전보다 활발해졌어요.-_;;

RE: 게시판을 분리하면 좀 나올 것 같기도.. 08.07.02 22:22

RE: ㅂㄷ뿐만이 아니라 제가 자주같은 데에서도 B카페회원분들이 B카페 숨막히다고 했는데 공감댓글이 많이 달려서 놀랐었어요 저도..

A카페에서의 활성화가 익명게시판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A카페와 B카페 사이의 갈등에서도 추론 가능하다. A카페 자유게시판이 극도의 침체를 맞이한 데에는 기존의 핵심 회원들이 모두 B카페로 유출되었다는 주요인 이외에도, B카페 회원들이 A카페 게시판을 대상으로 도배를 하는 소위 ‘도배 테러’가 지속되었고, 더구나 A카페에 글을 쓰는 회원들이 쪽지나 회원정보 조회를 통하여 비난을 받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 다시 말해, 자의로 A카페에 남는 쪽을 선택한 회원들조차도 게시판에 글을 쓸 의욕 자체를 상실했거나 눈치를 살피느라 공개적으로 글을 쓸 수 없었던 것이다.

근데 자료가 왜케 시원찮고 ㅡㅜ 08.03.20

원래 올려주던사람들은 다 잠수중인가요 ?

레방도 그렇고 빨리빨리 자료좀 많이 올려요,

근데 자료는 아무나 올릴수 있는거 아니죠 ?

RE: 저는 일부러 안올리고 있어요 하도 개인정보를 캐내고 씹어서..나중에 정말 잠잠해지면 활동하려고요 08.03.20 10:57

RE: RE: 정말 자료 올리면 왜 개인정보를 캡처하고 난리끼? 욕 쪽지는 또 왜보내고 자료를 올리건 말건 개인 회원 맘인데 08.03.20 11:03

RE:RE:거기 스토킹 장난아니예요 사진도 막 함부로 뿌리고 싸이테러는 기본 욕 엄청먹는데도 개념이 없는듯 08.03.20 11:06

RE:RE: 회원정보 막아놨었다가 엇그젠가 잠시 푸니까 B카페 '용사들의 방'에 지금 회원정보 풀렸다고 다들 신나서 이때다 하고 막 추적하고 그랬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A카페 신경안쓴다고 하면서 회원정보 풀리니까 바로 알아내고 추적하고 ㄷㄷ 운영자님이 앞으로도 계속 회원정보 막아놓는다고 약속하시면 또 모를까... 08.03.20 11:26

RE:RE: 진짜..자료올리는 사람 정보를 왜 캐내지. 완전 폭력이 따로 없네요. 08.03.20 12:28

RE:RE: 도를 지나쳤기.... 08.03.20 12:40

RE: 솔직히 용사고 뭐고 그 사람들도 한참 A카페 양질 자료 올라오고 분위기 좋을때(2002~2004) 가입한 사람은 거의 없고 레방에서 농담따먹기로만 우루루 몰려가서 즐겼으면서 그들이 A카페를 일으키고 끌어온듯 얘기하고 갔으면 간거지 염탐하고 정보 캐내고 하는거 정말 짜질한거 같아요. 맘맞는 사람들끼리 갔으면 거기서 알아서들 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전 A카페처럼 조용하게 자료 공유하면서 지내고 싶음. 08.03.20 12:26

RE:RE: 22 용사라는 사람들중에 2002~2004년 회원들 별로 없었어요 진짜 예전 회원들은 그래도 유주연이 만든카페인데 이렇게 몰아내는건 좀 아니다 이런식이었는데 그사람들한테도 쌍욕작렬에 밑에 우르르 난리났었지 08.03.20 12:35

RE:RE: 3333 오히려 레방 막 활성화되고 리플로 웃기고 이런 분위기 전 싫더라구요...원래 초창기 A카페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나 자기들이 A카페를 만들었다고 하지...그렇게되기 전부터 A카페는 고유의 분위기랑 매력이 있었던 패션카페였는데..오히려 여기저기서 어린 사람들 막 유입되고 활성화 된 후에는 리플로 싸움도 자주 일어나고 몰아가는거 엄청 잘하고 서로 비방 같은거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안좋아졌어요...; 08.03.20 12:44

RE:RE: 44 아..진짜 이런 말이 얼마나 하고싶었던지..ㅠ.ㅠ 저 2002년부터 가입해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 때가 훨씬 좋았어요... 보이콧할때 자기들이 마치 A카페의 선구자인냥 말하는데 어이없더라고요. 익제가 없을때는 이런말도 못하고 정말 ㅠㅠㅠㅠ 08.03.20 12:49

RE:RE: 66666666 나도 03년부터 A카페알고 활동해왔지만.. 무슨 자기들이 일으켜 세운것처럼..보이콧 반대뉘앙스글만 올려도 지금 A카페 이렇게 키운게 다 보이콧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짝소리도 말라는듯이.. 니들이 그렇게 씹어대는 이명박이나 전두환이랑 뭐가 달라? 자기들 뜻에 안맞는 의견 깡그리무시하고..그저 참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좋은말로 포장만했을뿐이지..니들도 이명박이나 전두환이랑 다를

거없어!! 08.03.20 13:44

RE: 원래 자료 많이 올리던 분들은 대부분 B카페로 갔으니까요.. 그리고 올리고싶어도 눈치보느라 못올리는 분들도 있을거고.. 08.03.20 13:13

A카페의 재활성화를 위해 고민하던 운영진이 ‘익명’게시판을 개설한 데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어느 정도 작용했으리라 보인다. 이렇게 개설된 익명게시판이 사담글은 나누고 싶지만 B카페 회원이라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 것을 걱정하던 B카페 회원들을 유인할 수 있었고, 사담글 논란으로 야기된 B카페 분열의 반사이익을 입은 A카페는 이 상황을 의도치 않게 게시판의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A카페와 B카페가 완전히 분리된 이후에도 두 카페는 여전히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A카페와 B카페의 영향력은 카페의 활성화라는 양적인 측면 이외에도 두 카페 회원들 간의 감정적 대립이라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A카페와 B카페는 원래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상당수의 회원들이 양쪽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게시물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감정적인 갈등과 불신이 표출되었다. B카페의 개설 이유가 카페지기의 신뢰 상실로 인한 일부 회원들 간의 극심한 불화를 발단에 두었던 만큼 두 카페의 사이는 우호적이지 못했던 것이다. B카페가 독립한 이후에도 두 카페 사이의 감정적인 대립은 지속되었다.

A카페에 남아 있는 기존 회원들은 B카페 회원들이 자신들을 카페지기의 부정도 상관하지 않는 의식 없는 집단, 혹은 운영자나 그들의 측근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B카페만이 선이고 A카페는 바보 혹은 계몽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비난하고 있음을 불쾌해 했다. 그리고 그들은 B카페를 다수의 힘을 등에 업고 자신과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막말을 일삼거나 자신들의 의견만이 여론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는 ‘어린애’들의 집단으로 평가했다. 또한 B카페 회원들이 A카페의 자유게시판을 비롯한 주요 게시판들에 A카페지기에 대한 수천에서 수만 건의 비난 게시물로 ‘도배’하는 행위(2008. 3. 7 43 레방도배) 또한 불쾌하게 여겼다.

남아있는 A카페인들에 대한 무시 08.03.20 09:26

B카페 사람들 남아있는 A카페 사람들은 머리가 떨어지거나 바보라고 생각하는것

같아요~~~

한마디로 가르쳐야 된다 계몽해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B카페로 데려가야 한다 안그러면 세상이 망하는것처럼 날뛰고 있네요~~

A카페에 도배글 남기면 바로 용사되고, 칭찬들은 분위기속에서 10대의 어린분들 아주가관이죠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존재하는 인터넷 공간 속에서 오로지 B카페가 답이다 A카페에 있으면 약이다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B카페에 있으면 용사 A카페에 있으면 바보거나 머리가 떨어지는 사람 앞으로 얼마나 더 B카페 어린분들이 철없는 치기를 봐주어야 하나요 (후략)

RE: 갔으면 가서 잘살면될걸 오지랴도 참 넓어요 ㅎㅎㅎ

RE: 또 도배질 했나보네요?? 하여튼 정신 나가고 할일없는것들이예요 이젠 막 욕해주고 싶네

RE: 그러게요 거기에 자기랑 생각 다르면 무조건 운영자고 알바고..

RE: 첨엔저도가입하고그랬는데 갈수록 유치해져요A카페 일일이 캡쳐해서 B카페 얘기 조금이라도 나오면 댓글까지 퍼가서 욕하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유주연이니 측근이니 알바니 지금생각해보면 진짜 할일더럽게 없어보임. 뭐라도 되는줄 아나 08.03.20 11:16

저리고 살고 싶을까? 한심하게 또 도배라니 원 ㅈㅈ 08.03.24

이젠 한심하다

RE: 그냥 무시하셈 지인생 지가 찌질하게 사는거 ㄴㅍㄴ 이게 왜 민폐냐규!!

RE:ㅋㅋㅋㅋㅋㅋㅋㅋ 또 용사방에 글쓰겠쥬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저건 B카페있는 사람들도 창피해 할것 같다구 08.03.20 04:48

RE:RE: 22 B카페내에도 제정신인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유치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더라구요 08.03.20 10:58

RE:B카페에서도 어리고 찌질하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짓 하는거쥬. 용사 칭호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일종의 영웅심리

B카페 회원들 역시 A카페에 남아 계속 활동하는 회원들에 대해 우호적이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 B카페 개설 초기에는 A카페의 익명게시판에서 B카페가 언급되어 비난당하는 상황에 대한 성토와 강한 불쾌함 표출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B카페 운영진이 카페 공지로 'B카페는 더 이상 A카페의 임시 거처가 아니라 독립적인

하나의 카페 소울 드레서입니다. A카페와의 비교글, B카페 비방글은 무통보 삭제 후 강등하겠습니다(모든 게시판에 적용)라는 규정을 통보하면서 A카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원색적인 비난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기 위해 애쓰는 것 같긴 하지만 매일 이벤트나 하고 있다”, “쇼핑몰 게시판이 블라인드 처리되면서 전체 메일로 쇼핑몰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매우 구차하게 보인다”, “알바들이 글을 올려대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망했다”는 식의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은근한 비난과 조롱이 주가 이루는 게시물들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심심해서 간만에 A카페를 가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해서 깜짝 놀랐다. 나만 안 간다고 남들도 안 갈 거라는 대단한 착각에 빠졌었나보다”, “난리 속에도 계속 새글 표시가 뜨길래 들어가 봤더니 카페온에 지금 접속한 사람이 290명이 넘는다”, “그래도 그렇게나 큰 카페가 쉽게 무너질까 싶다”는 식으로 A카페의 ‘예상 외의 선전’에 관심을 표시하는 반응도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

6~7월에 접어들면서 B카페가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사담글을 금지하는 등의 정치적이고 사회참여적인 모습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면서도 A카페와의 신경전 양상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소고기 수입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대하는 A카페 회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거나, A카페의 익명게시판에서 B카페가 ‘운동권 애들’, ‘좌파랑 비슷한 애들’, ‘정치단체’,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동된 사람들’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과 같이 이 시기의 A카페와 B카페의 갈등은 정치적 요소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

A카페 진짜 웃긴다 ㅋㅋ 08.06.28

A카페 안간지 어언 몇 달된거같네요 탈퇴는 안했구요

익게 생겼을때 구경가보니까 이명박 왜 그렇게 욕하는지 모르겠다는 글에 숫자동조리플 막 달리곐ㅋㅋ 숨어있던 판나라당 지지자들 익게에 대거 출연한거 보고 욕하고 강 나왔는데 A카페시절 대선때 A카페 이름으로 문국현씨 지지 성명서 내고 그랬는데

그때 숨어있던 판나라 지지자들 얼마나 거슬렸었을까요.ㅋㅋ

계속 숨어있다 우리 B카페인들 대거 탈퇴하고 익게생기니 그제서야 난리들 치는

거보니 지들도 당당하진 않나봐요.ㅋㅋ

님들 A카페 지금 완전 --..... 08.07.05

A카페를 예전 A카페라고 생각하면 안되겠네요 ㅠㅠ 어제 예전 자료 찾다가 한번 들어갔는데 -_- 익명방에 B카페욕 많다고 해서 찾았는데 그건 제가 볼땐 없었
요;

소고기 들어오면 먹을꺼냐는 질문에 95%가

싸고 질 좋고 구이용으로는 쥘 맛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다고 답하고 있었
기...=_=

그리고 광우병 절대 안걸린다고..ㅋㅋㅋㅋ..ㅋ...

광우병 괴담..솔직히 약간 인정은 한다만.. 협상자체에 잘못된 점이 많아서 지금 화
내는 건데..참..그걸 가지고 정책적으로 사람들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그리고 ..

(중략)

댓글을 다니까 극좌파냐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 거기 남아있는거 보면 뻔하지 않냐기..ㅋㅋㅋ 똥이 똥인지 모르는사람들

RE: 오히려 유주바기한테 고맙기ㅋㅋㅋㅋㅋ안 그럼 평생 A카페에서 찌질이들하고
어울려 살았을꺼야????????????? 응????

RE: 거기 유주연년같은 알바들 판쳐요ㅋㅋㅋㅋ님들 모름?ㅋㅋ알바천지임

RE: 알바들과 수준 이하의 인간들로 드글드글...이렇게 나오길 정말 잘했어요

B카페 독립 이후 A카페의 변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패션 카페로서의 A카
페의 기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베스트 드레서’라는 카페명에서 알
수 있듯이 A카페는 원래 패션 정보 교류를 위하여 개설된 카페였으나, 회원수가 늘
어나고 회원들의 재치있는 리플이나 유머들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친목
카페로서도 주목받아왔다. 즉, A카페는 정보와 친목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카
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친목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은 자유게시판이나 레스트보
드에서 잡담, 일상사, 연예인 이야기 등 친목 성격의 글을 주로 올리던 적극적인 활
동 회원들은 B카페로 옮겨감과 동시에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하지만 패션 정보 제
공이라는 기능은 A카페 사태 이전과 비교해도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패션 사진이 올라오는 게시판을 살펴봄으로써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에서도 가장 활발한 ‘파파라치 게시판’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파파라치 게시

〈표 3〉 파파라치 게시판의 연예인 사담글 조회수

등록 날짜	게시물 내용	조회수	
		A카페	B카페
3월 31일	케이트 모스	3,270	1,466
	머라이어 캐리	1,159	360
	마크 제이콥스	2,423	1,427
	로즈 맥고완	691	299
4월 15일	니콜 키드먼	918	607
	기네스 팰트로우	1,100	911
4월 30일	맨디 무어	1,115	590
	김 카사디안	1,530	294
5월 15일	레이튼 미스터	765	1,554
6월 15일	브리트니 스피어스	2,460	4,977
	리즈 위더스푼	2,677	3,015
	캐서린 머피	1,456	1,544
	크리스틴 데이비스	974	1,014
6월 30일	애슐리 심슨	1,260	1,306
	클라우디아 슈퍼	1,337	914
	제니퍼 로페스	1,422	648
	린지로한	3,004	3,793
7월 15일	하이드 클럽	973	294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2,342	1,127
	린지로한 1	3,034	669
	린지로한 2	1,917	472
	아드리아나 리마	2,648	1,939

판에 올라오는 패션 자료들은 외국의 동일한 출처로부터 복사해온 사진들이기 때문에, A카페와 B카페의 파파라치 게시판에는 내용이 완전히 겹치는 게시물들이 등록되고 있다. 매달 15일과 말일 양쪽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 중 동일한 게시물의 조회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A카페가 B카페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A카페가 B카페에 비해 회원수 측면에서 월등하게 앞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친목용 게시판이 극도의 침체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정보 게시판에서

는 조회수 급락과 등록 게시물 수 저하와 같은 B카페 독립의 여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굳이 글을 쓰거나 리플을 다는 등의 가시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패션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 정보를 얻어가기 위해 A카페를 방문하는 소극적인 활동 회원들은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A카페에서 회원들 간의 활발한 소통은 줄었지만, 정보 공유라는 카페 설립 ‘본연의’ 목적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B카페는 A카페지기의 부정을 파헤치고 새로운 카페를 만들어 독립하면서 회원들 사이에 형성된 연대감으로 ‘B카페인’이라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했고, 이 공동체 의식은 촛불집회 참여와 광우병 반대 신문광고 모금운동과 같은 일련의 사회적 참여와 그에 따른 매스컴의 조명을 통해서 더욱 공고해졌다. 이러한 연대감에 A카페에서 경험한 부조리와 결별한 ‘우리는 다르다’는 자부심과 ‘배운 여자’라는 언론의 칭찬에서 비롯된 일종의 우월감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B카페의 성장과 회원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굴레로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카페에 대한 자부심, 공동체 의식, 소속감 등은 초기에는 카페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오히려 스스로를 움아매어 ‘우리는 의식 있는 집단이므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사담을 나누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식으로 하나, 둘 규제를 늘리게 했고, 전체의 의견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 하는 회원에게는 강압적으로 작용하면서 불만과 불화를 양산해내어 결국은 카페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회원들도 자유게시판을 통해 여러 차례 성토했고 있는 주제로, 이미 카페 구성원 스스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인터넷 커뮤니티와 정치화의 결과

촛불시위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치화가 인터넷 커뮤니티의 성장과 발전에 미친 영향은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표 3>은 두 인터넷 커뮤니티의 갈등과 분열이 시작된 시점부터 촛불시위가 가열되기 시작한 5월을 거쳐 사담 논란이 일어난 7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양쪽 커뮤니티의 양적 성장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총회원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갈등과 분열이 시작된 2월 이후 3개월에 걸쳐 감소하던 A카페의 총회원수가 5월 초를 기점으로 하여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월 말에는 A카페 사태 이전 총회원수의 99%까지 회복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는 분열 사태 이전까지는 계속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던 A카페가 회원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다시 카페를 공개로 전환하고 신규 회원 가입을 받은 이유도 있겠으나, 이것만으로 회원수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공개카페 전환 이후에도 두 달 넘게 회원수가 감소해왔기 때문이다. 총회원수가 증가 추세로 돌아선 5월은 B카페에서 사담글로 인한 갈등이 번지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유머와 해학으로 설명되는 A카페의 성격이 그대로 이어진 B카페에서 그와 같은 ‘즐거움’들이 촛불시위 참여로 인하여 반강제적으로 억압되기 시작하자, 다시 A카페로 눈을 돌린 일부 회원들이 이 회원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는 쪽이 더욱 합당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시기 B카페의 회원수 감소와도 연결지어 설명 가능하다. B카페의 총회원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카페 개설 초기 총회원수의 급격한 증가가 눈에 띈다. 이는 기존의 대형 커뮤니티(A카페)에서 새 커뮤니티(B카페)로의 일괄적인 이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4월 11일, B카페의 회원수가 약 8만 명에 도달하게 되자 B카페는 비공개 카페로 전환된다.⁵⁾ 따라서 비공개 전환 이후의 총회원수 변화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탈퇴 혹은 강퇴에 의해서만 변화된다. 다음 카페 데이터의 누락으로 인하여 4월부터 6월 중반까지의 상세한 총회원수 변화는 포착할 수 없으나, 6월 중순 이후 7월 말까지 총회원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사가 B카페 내부에서 촛불시위 참여와 사담글 논쟁으로 인하여 회원들 간의 갈등과 긴장이 가장 높은 시기였다는 점과 같은 시기 침체되어 있던 A카페의 회원수는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치화가 인터넷 커뮤니티

5) 이에는 회원수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충분한 8만여 명에 도달했고, 두 달 남짓한 기간이면 A 카페에서 옮겨오고자 한 회원들은 충분히 옮겨왔다고 판단한 이유도 있지만, B카페의 개설 자체가 A카페 카페지기에 ‘함께 대항한’ 경험을 공유한 회원들 간의 연대감과 강한 공동체 의식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한 외부인의 유입이 늘어나는 것은 카페 문화에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증가한 이유도 크다.

의 양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

촛불시위가 인터넷 커뮤니티의 양적 발전에 미친 영향은 게시물 수 증감과 페이지뷰 데이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게시물 수와 페이지뷰는 활동 회원수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B카페의 경우, 카페 개설 직후인 2월 14일부터 2월 27일까지의 총회원수는 38,144명이었는데 이 중 활동 회원수는 37,52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가입한 회원 중 약 98%가 '유령회원'이 아닌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3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활동 회원 비율은 약 86% 선으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대개의 카페에서 활동 회원의 비율이 10~20%대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B카페의 활동 회원 비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는 B카페가 신생 카페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카페에서 집단적으로 이주해온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B카페의 회원들이 A카페의 활동 회원들 중에서도 게시물 업로드와 여론을 주도하던 핵심적인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활동 회원수 역시 데이터 누락으로 인하여 4월부터 6월 중순까지의 정확한 추이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카페의 활성화가 정점에 달했던 3월 말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수치와 비율 모두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7월 말 활동 회원의 비율은 총회원수의 64% 수준으로 여타의 카페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비율임은 사실이지만, 초기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게시물 수와 페이지뷰 역시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3월에 비해 게시물 수는 1/3, 페이지뷰는 1/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단순히 카페 개설 초기의 열기와 열정이 점차 식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그 하락 폭이 상당하다. 오히려 이는 회원들의 전체적인 활동 자체가 줄어들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성화 정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 역시 사담글 논쟁의 여파라고 볼 수 있다. 사담 금지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7월의 통계를 살펴보면, B카페의 활동 회원과 페이지뷰가 줄어드는 반면, A카페는 같은 시기 두 지표 모두가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사담글 금지가 시작된 7월 8일이 속해 있는 7월 3일에서 7월 16일 사이에 A카페의 게시물 수가 갑자기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해준다. 당시 A카페에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A카페가 보여준 이 시기의 양적 성장은 B카페에서 벌어진 사담글 금지의 반사이익이었다고 설명 가능하다.

5. 맺는 말

인터넷 커뮤니티는 인터넷 소통의 매우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친목도모나 정보 교환 등 비정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의 다양한 회원들 사이의 소통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다종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회원수가 많은 초대형 커뮤니티의 경우 다양한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 그 성격이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초대형 커뮤니티의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살펴본 A카페와 B카페는 지배적인 커뮤니티 사업자인 다음사의 카페에서 랭킹 5위 이내에 드는, 가입자 수 75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카페이다. 이러한 초대형 카페가 2008년 촛불시위 과정에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통상적으로 비정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는 회원들 간에 소규모에서 시작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75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패션 카페인 A카페와 B카페는 20~30대 고학력 여성이 회원으로 있어 2008년 촛불시위 당시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생활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촛불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B카페는 촛불시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적 신변잡기나 TV, 영화 등에 대한 사적 글, 즉 ‘사담글’을 금지하는 투표를 실시하여 사담글 금지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결정은 비정치적인 회원들을 A카페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동시에 ‘의식있는’ 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회원들 간의 연대성 강화로 연결되었다. 그 결과 A카페는 일부 비정치적인 회원들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활동 회원수나 게시물 수에서 빈약한 반면, B카페는 회원수의 증가는 둔화되었지만, 활동 회원수나 게시물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활발한 카페가 되었다.

2008년 촛불시위는 생활정치적 이슈로 20~30대 여성 카페인 A카페와 B카페의 정치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 논의는 2008년 촛불시위의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 박아름(2009), 〈상업적 요소의 침투가 인터넷 커뮤니티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 다음 카페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 서이종(2002), 《인터넷 커뮤니티와 한국사회》, 한울.
- 서이종(2009), “댓글의 상호성을 통해 본 인터넷 게시판의 공론장적 성격”, *Law & Technology* 5권 4호.
- Bimber, Bruce (2003), *Information and American Democracy: Technology in the Evolution of Political Power* (《인터넷 시대 정치권력의 변동: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진화》, 이원태 옮김), 삼인.
- Chadwick, Andrew (2006),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Oxford University Press.
- Haque, Barry N. and Brian D. Loader (eds.) (1999), *Digital Democracy: Discourse and Decision Making in the Information Age*, London: Routledge.

Politicization of Internet Communities and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of Year 2008

Suh, Yi-Jong* and Park, Arum**

This paper deals with explaining a characteristics of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internet environment through case study of Beth and Soth cafe in DAUM. In chapter 2, we describe a characteristics of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internet and then of Beth and Soth cafe as fashion cafe in conflict. In chapter 3 we show a contrast of political discussion at Beth and Soth cafe including policy of private conversation, and a change of membership and posted writings at two cafes in chapter 4.

Keywords: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Candlelight demonstration, Internet Communities, Active Members, Private Convers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Ph.D. Student, Department of Sociology, Princeton University